



성인(聖人)의 聖이란 글자를 들여다보자. 耳(듣다)가 먼저 쓰이고 口(말하다)는 나중에 쓰였다. 즉, 성인은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또 예순의 기원인 耳順도 역시 耳가 들어가 있다. 즉, 예순이 된다는 것은 들을 줄 아는 나이를 의미한다. 주변을 둘러보라. 예순이 넘었는데도 귀는 닫고 입만 열고 사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과연 어른인가? 그들은 과연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을까? 배려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그의 입장과 정서를 살피서 행동하는 것이다.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

이숙영 이숙영 자기계발 클리닉 대표



집안이나 조직 더 크게는 사회에서 책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책임이란 무엇일까? Responsibility의 어원을 들여다 보자. Response + ability로 '책임'이란 '반응할 수 있음'이다. 여기서 반응한다는 것은 듣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듣고 살피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학교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애들이 그 친구를 왕따시켜.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나라도 그 아이 친구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엄마가 말한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공부나 해!” 그 딸은 다음 날 자살을 했다. 왕따는 본인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즉, 엄마가 딸에게 반응하지 못해 일어난 무책임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을 누군가가 때린다면 당신(부모들)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식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옆집 아이가 맞고 있다면 고통스러움이 덜할 것이다.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자. 옆집보다 더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 아이가 맞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지도 모른다. 정리해보자. 내 아이에게만 반응하는 사람이 동네 통장을 하는 것보다는 옆집 아이, 더 나아가 그 동네 전체의 아이에게까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기 가족 또는 친인척의 고통에만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국민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남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꼬일 수 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을 지도자, 어른이라고 말한다. 반응한다는 것, 그것은 먼저 살피서 듣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첫 번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스스로를 위한 자기배려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자기배려’는 ‘단 한 번도 되어 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는 실천’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대부분의 욕망은 진짜 나의 욕망이 아닌 부모의 욕망이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라면 자신의 진짜 욕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 개개인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는,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남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개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 동력이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요즘 인문학과 철학이 대세다. Philosophy(철학)의 어원은 Philos(사랑) + Sophos(앎)의 합성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hilos이다.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알고도 한다. 거꾸로, 알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사랑의 대상을 찾아 끝까지 알려는 행위,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한때 유행했던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은 ‘행복은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합니까?’라는 말은 ‘당신은 관심이 있습니까?’와 동의어다. 사랑의 관심 대상은 무엇이든 괜찮다. 사람이든, 일이든, 식물이든, 소셜이든. 그렇다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아하는 대상을 선택한 후 좁혀나가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국어 과목이 좋다’보다는 ‘소설이 좋다’, 소설가 중 ‘어느 작가가 좋다’, 그 작가의 ‘어느 작품이 좋다’, 그 작품 속의 ‘어느 구절이 좋다’... 등으로 해서 자기만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똑같은 작가를 좋아하더라도, 똑같은 작품을 좋아하더라도 그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개개인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섬세하게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자기만의 Philos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며, 최고의 자기배려다.

결국 내가 관심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알고도 하는 행위인 자기배려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의 일원인 타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타인 배려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일 아닐까.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간극 때문에 완전한 만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어찌할 수 없는’ 간극에 관련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은호·김종철의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렵다>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까 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상대에게 가지는 기대치를 10이라 하고, 상대가 나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3이라고 수치화해보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기대치를 8로 낮추고, 상대가 나를 위해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서 그 정도를 5로 높여도, 여전히 3이라는 간극이 존재한다. ‘어찌할 수 없는’이라는 이름의 간극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8을 강요하면 상대는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기 십상이다. 반대로 상대가 당신의 배려를 알아주지 않고 기대치를 낮추라고 하면, 당신은 서운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나의 입장만 내세울 때 관계는 위기를 맞는다. 서로의 예측과 기대, 기대와 노력 사이에 어찌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TTA